

'화물연대 파업' 운송방해 등 불법 60명 수사

주요 물류거점 천막 철거...운송도 원활해 재고소진 주유소 61개소→49개소로 줄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철회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경찰은 관련 사건 41건, 60명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위기경보단계 하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9일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주요 물류거점 천막 등은 대부분 철거됐고, 운송도 원활한 상태다.

재고 소진 주유소는 전날 61개소에서 49개소로 줄었다. ▲경기 12개 ▲강원 12개 ▲충남 10개 ▲충북 6개 ▲서울 4개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운송거부 현장 조사, 업무개시명령 이행여부 현장 조사 등을 진행했다. 화물연대 집회 중 자동차 번호판 무단 분리자 34명을 형사고발

한 상태다.

해양수산부가 투입했던 군위탁 컨테이너 수송 차량 105대는 모두 복귀할 예정이다. 항만 장치물(컨테이너)을 쌓아 보관할 수 있는 능력은 이날 평균 67.5%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운영 중인 비상대책반은 시멘트·철강·정유·석유화학 등 피해 현황, 업무개시 및 운송거부 종료 동향을 파악했다. 파업 이후에도 관련 업계동향 파악을 이어갈 예정이다.

경찰은 경찰관기동대 약 4500명, 수사·형사 1521명, 교통경찰 1386명을 배치했다. 순찰차·싸이카·견인차 908대를 운용해 4126대를 에스코트하고 교통법규 위반 435건을 단속했다.

화물차량 손괴·운송방해 등 총 41



건 60명을 대상으로 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운송방해·경찰관 폭행 혐의로 현장제포된 인원은 7명에 달한다.

이날까지 폭행 등 총 791건의 112 신고를 처리했다. ▲협박 6건 ▲폭행·시비 39건 ▲운행방해 97건 ▲교통불편 255건 ▲소음 92건 ▲에스코트 72건 ▲기타 230건 등이다.

관세청은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주말을 포함한 임시개청을 통해 특송 화물 신속통관을 지원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28일 '심각' 단계

로 상향했던 위기경보단계 하향 여부를 오는 12일 검토한다. 행안부는 위기경보단계가 하향될 경우 중대본 해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철회 여부를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과반 찬성으로 총파업 종료 건이 가결돼 업무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찬성률은 61.8%다.

김재환기자



광주시선관위, '선거와 나눔' 연말 나눔행사 전개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봉사단체인 '선거와 나눔'은 8일 광주지역 무료급식단체 및 이동양육시설 2곳에 쌀 80포대를 전달하고 무료급식봉사, 환경미화 등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김재환기자



광주 남부소방, 소방용수시설 5m 이내 주정차 금지 안내

광주 남부소방서(서장 이정자)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원활한 소방용수 확보를 위해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최이슬기자



광주 동부소방, 겨울철 고층·지하연계 건축물 화재안전 합동점검

광주 동부소방서는 겨울철 특별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관내 고층 및 지하연계 건축물에 대한 합동화재안전점검을 지난6일부터 3일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슬비기자



광주보훈청,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행사' 실시

광주지방보훈청(청장 정홍식)에서는 6일 국가유공자(공상군경)故 변상규님의 유족(배우자) 대한민국전통물경미망인회 광주광역시지부장 김오례 님 덕을 받들어 국가유공자 명패를 부착하는 행사를 가졌다.

서선욱 기자



나주경찰, 모범운전자회 치안설명회 개최

나주경찰서(서장 박상훈)는 최근 박상훈 나주경찰서장 및 각 과장, 교통관리계 직원, 모범운전자회원 등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범운전자와 함께하는 치안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나주=송준표기자



완도해경, 연안해역 추락사고 예방 '로고젝터' 설치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정수)는 최근, 해상추락 사고 예방과 안전 경각심 제고를 위해 완도군 군외면 원동항 선착장에 '로고젝터'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완도=기동취재본부

'실내마스크' 해외는 지금?... "자율화 해도 의료·복지시설 유지"

미국·프랑스·덴마크 등 의무착용 전면해제

정부가 실내마스크 의무조정 로드맵을 연말까지 내놓기로 한 가운데, 의무 착용을 유지할 시설을 검토 중이다.

10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코로나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날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해 자율적으로 착용하되, 일부 필수시설의 경우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며 "해외 주요 국가의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 착용 의무화 사례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당국이 집계한 '주요 국가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현황'을 보면 해외 대부분 국가는 의료·복지시설 내 마

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고 있다.

지난달 25일 기준 실내마스크가 자율화된 조사 대상 19개국은 모두 의료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돼 있다.

19개국 중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 국가는 12개국, 대중교통 착용은 9개국, 약국은 8개국이었다.

다만 의무 국가에 포함된 이집트의 경우 대부분 국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당국도 단속하지 않는 상황이다.

대만의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비교적 강하게 유지하고 있는데, 민간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반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혀 없는 국가는 미국, 아르헨티나, 덴마크, 슬로베니아, 터키(튀르키예), 프랑스, 헝가리, 네덜란드,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이다.

정재훈 가천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는 "모든 장소에서 의무화가 해제된 국가가 오히려 더 찾기 어렵다"며 "대부분 국가에서는 아직 의료기관, 대중교통 등의 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이 법적 의무로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방역조치를 유지해 온 만큼 민간사업장, 슈퍼·마트, 종교시설 등에서 자율화하는 방식이 유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당국이 언급한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은 의무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언급된 시설과 요양시설 등을 포함해 전문가 및 자원위원들과 착용을 유지해야 하는 시설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날 말 어떤 조건에서 실내마스크를 자율화할 수 있을지를 담은 '실내마스크 의무조정 로드맵'을 발표한다. 신규 확진자뿐만 아니라 위중증·사망자 추세, 의료대응 역량 등을 포함한 종합 지표다.

이 로드맵을 바탕으로 겨울철 유행이 안정화되면 이르면 내년 1월 실내마스크 자율화가 시행될 전망이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7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점을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3월로 제시한 바 있다.

서선욱기자



운행 준비하는 화물차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지난 9일 총파업을 철회한 가운데 11일 서울 양천구 서부화물터미널에서 한 화물차주가 차량을 점검하고 있다.

'주말에도 확산세' 광주·전남 확진자 3500명대

일주일 전 확진자 대비 428명 상승

광주·전남 지역 일일 확진자 수가 주말에도 3500명대에 달하며 겨울철 유행세가 이어지고 있다.

11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지난 10일 하루동안 발생한 광주·전남 코로나19 확진자는 광주 1894명·전남 1680명 등 총 3574명이다.

일주일 전인 지난 4일(3146명)보다 428명 늘어났다.

광주·전남 일일 확진자는 지난 달 새간 4000명대를 유지했으나, 휴업하는 검사 기관이 많은 주말인 전날 3500명대를 기록했다. 최근 확진자 추이는 5일 4489명, 6일 4800명, 7일 4301명, 8일 4076명, 9일 4007명 등이다.

전날 광주에선 확진자 1명이 숨졌고 위중증 환자가 4명 발생했다. 또

1250명이 재택 치료를 받았다. 해외유입 2명을 제외하면 모두 지역사회 감염 사례다.

같은 날 전남 지역 확진자 3명이 사망했다. 위중증 환자는 15명으로 집계됐으며 병상 가동률은 49.4%다.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집합 감염 고위험시설 41곳에서 67명이 확진되는 등 소규모 집단 전파가 잇따랐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기자

'모두 외출한 사이' 홀로 잠든 6살 막내딸 화재로 질서해 숨져

가전제품 과열 추정

장흥에서 화재로 숨진 6세 여아는 가족 모두 외출한 사이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10일 전남 장흥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29분께 장흥군 장흥읍 한 식품가공업체 공장 2층에서 불이 나 25분 만에 꺼졌다.

이날 불로 2층 숙소에서 잠자고 있던 A(6)양이 연기에 질식사 숨진 채 발견됐다.

A양의 업체 대표의 4남매 중 막내 딸로 화재 당시 혼자 잠든 사이 미처 불길을 피하지 못해 화를 당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1층은 가동작업 등이 이뤄지는 공장이고, 2층은 대표 부부가 4남매가 함께 사는 거주 공간으로 사용돼온 것으로 확인됐다.

A양의 부모는 이날 김장을 담그기 위해 시골집에 갔고, A양의 형제와 자매는 A양이 잠든 사이 학원에 가거나 잠시 외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19 출동도 합기도 학원에서 돌아온 중학생 오빠가 비상벨 소리를 듣고 놀라 급히 신고하면서 이뤄졌다.

경찰은 거주공간 냉방고 쪽에 그을음이 심한 점 등으로 미뤄 가전제품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이 아닌가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합동감식을 진행 중이다.

정홍=김도영기자